

-금강종합건설 선운사-홍덕간 도로건설공사-

무재해 준공으로가는가장 빠른 길은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오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운 해이다.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 같은 강렬한 태양빛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열대야는 더운 날씨로 지친 몸을 더욱 힘들게 한다. 오늘도 여전히 선운사로 향하는 동안 뜨거운 태양이 함께한다.

이렇게 강렬한 태양빛과 함께 찾은 곳은 전북 고창에서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선운사-홍덕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송충호 소장)이다.

2000년 12월 30일에 착공한 총 10.27km, 폭 20m의 선운사-홍덕간 도로건설현장은 2006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무재해 준공이라는 일념 아래 활발한 기운이 감돈다. 이 기운은 최근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하고, 무재해 5배수를 지나 무재해 준공(무재해 7배수)으로 이어질 듯한 힘이 느껴진다.

선진 안전시스템을 추구하는 현장

현장에서 공정 진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송충호 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10km가 되는 현장을 2번씩 안전순찰하는데 요즘 같이 살인적인 더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현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참으로 유별나다고 할 정도이다. 이처럼 극성스러운 정도로 현장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송충호 소장이 있기에 무재해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 송충호 소장

건설안전리포트

것인지 모른다.

송충호 소장은 매일 현장에서 발견된 불안전사항은 다음날 아침 7시 공정회의에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오후 순찰시 이를 확인하는 그만의 안전사이클을 갖는다.

이처럼 안전이 생활화된 것은 2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송충호 소장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는 Safety Engineer 가 있었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불안전 요소가 있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완전 제거·개선후 재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른 QC Engineer 보다 권한이 막강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송충호 소장은 우리나라도 해외에서처럼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라고 누누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송충호 소장은 선운사·홍덕간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만큼은 해외 Safety Engineer 가 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선안전 후시공을

표방하는 현장

당 현장은 교량공, 터널공 외 여러 위험공종들이 있다. 그 중 터널 구조물공사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한다.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까라는 우려속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당해 공사 특성상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시



설물 등 설치가 난해하여 작업진행이 더디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과 원칙인 “선안전 후시공”이라는 대명제하에 공사는 진행되었다. 공사 진척이 늦어도 항상 1차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저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해당 공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작업전 안전교육을 통해 상기시키면서, 안전작업

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후 작업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험난한 산맥을 넘어서 인지 오늘의 무재해 현장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 때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나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송충호 소장은 말한다.

현장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요즘처럼 더운 날은 드물다. 특히 완전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토목현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불볕더위를 그대로 근로자가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악조건이다.

이에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월1회 이상 식당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식중독예방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근로자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혹서기 전용 안전모 턱끈, 안전모 차양 및 안전모 땀흡수대를 전원 지급하였고, 특히, 아주심한 무더위





섭씨 35도씨 이상의 기온에서는 잠시 작업을 중지하는 혹서기 안전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근로자들도 우리의 가족, 내가족입니다.”라는 말에서 10년만에 찾은 무더위 속에서도 무재해 시공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형식적이지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 안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추진하는 안전활동은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한 안전활동이라 해도 형식적이지 않고, 근로자 중심의 진정한 안전활동을 전개할 때 그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이 곳 현장에서 바로 그렇다. 먼저 정리·정돈이 있다. 정리·정돈이 잘 되는 현장은 현장안전도 잘 되고, 현장안전이 잘 되어야 공사진행도 순조로울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장을 깨끗이 하는데 혼열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신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근로자 건강관리는 현장투입 전 당노, 혈압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를 비치하고, 음주측정기 및 음주작업 방지용 평균대를 현장에 설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이 평균대를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안전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할 때 그 힘은 배가되어 진정한 무재해 현장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 곳 현장에서는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계기가 많다. 그중 하나가 되기 위한 행사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등반대회를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기원제를 가진다. 또한, 1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전 직원이 완주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이 자신감은 무재해 준공으로도 이어진다.

끝으로 자신감에 찬 이곳 사람들, 하나가 된 이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무재해 준공은 분명 찾아온다는 확신을 갖고 서늘로 발길을 돌린다.

〈최중덕 기자〉

